

'덕진권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머리 맞대

전주시·기획재정부·LH, 현장 시찰·간담회 갖고 사업 개요·추진계획 등 보고

전주시가 전주종합경기장과 옛 전주 지방법원·지방검찰청 부지 등 덕진 권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을 위해 기획재정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머리를 맞댔다.

시는 11일 전주종합경기장과 옛 법원·검찰청 부지 등에서 덕진권역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기재부, LH, 한국자산관리공사 등과 함께 실내체육관과 종합경기장 부지 현장을 시찰한 후 전주시장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간담회에는 김승수 전주시장과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이승원 기재부 국유재산심의관, 정운섭 한국토지공사 지역균형발전기획처장, 남궁영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개발본부장, 박성수 전북대학교 사무국장, 장한두 전북대 교수, 김명수 국토연구원 박사, 열철호 건축공간연구소 박사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시는 전주종합경기장 일대에서 추진되는 덕진권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개요와 추진계획 등을 보고했다.

LH는 옛 전주지법·지검 부지에 로파크 등 문화시설과 혁신성장거점, 공동주택 등을 조성하는 부지개발사업에 대한 현장브리핑을 했다. LH는 옛 법원·검찰청 부지에 △슬로로파크



전주시는 11일 전주종합경기장과 옛 법원·검찰청 부지 등에서 덕진권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개요와 추진계획 등을 보고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생활지원 근린 생활시설 △벤처·창업 지원센터 △주거시설과 연계된 지식산업센터 △생활지원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이어 전주시장실로 자리를 옮겨 △국유지를 활용한 전주시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계획 △비도시지역 국유지 개발사업 모델 및 추진방안 △국립대 폐폐합부지 개발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옛 전주지법·지검 부지에서 추진되는 '전주 로파크 개발사업'은 민생동 범포타운 이전 후 쇠퇴한 구도심을 국유지 토지개발을 통해 법체합시설(로파크), 혁신성장공간 등으로 조성해 도시재생을 촉진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은 LH가 위탁개발해 토지를 조성한 후, 전액 국비를 지원 받아 법문화체험시설인 로파크를

건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로파크 사업을 위한 국비 212억 원을 확보했고, 올해까지 용역비 5억2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시켰다. 또, 기재부와 LH의 협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국유재산법에 따른 1단계 절차인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2단계 절차인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절차에 들어갔다.

시는 로파크 개발사업이 본 계획대로라면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와 전주 실내체육관을 포함한 덕진권역 49만 8000㎡ 부지에 오는 2027년까지 국비 250억 원 등 총 566억 원을 투자해 메타버스 중심의 첨단 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을 거점으로 만드는 덕진권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덕진권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는 이들 마중물사업 외에도 부차협업사업 예산과 민간투자사업 등을 포함해 총 63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도시의 기억과 시민들의 삶이 담긴 법원·검찰청 부지에 들어설 로파크는 공공기관 이전 후 침체된 주변상권을 회복시키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정원의 숲과 시민미술품, 한국문화원형콘텐츠 체험 전시관 등 종합경기장 부지를 시민들의 품으로 되돌려주는 시민의숲1963과 연계해 전주발전을 이끌 또 하나의 중심축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저소득층 아동 구강건강 돕는다

전주시보건소·시 치과의사회, 어린이 치과주치의 사업 실시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지역 내 저소득 아동의 평생 구강건강을 위해 보건소와 전주시치과의사회가 협력해 치과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어린이 치과주치의 사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어린이 치과주치의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동에게 구강관리 서비스와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평생 구강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다. 시는 총 2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1인당 10~20만 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치료 지원 항목은 △레진 △인레이 △스크라운 △브릿지 등이다.

시는 구강진료가 필요한 저소득층 아동의 신청을 받아 사업비를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희망자는 보건소 구강보건센터(063-281-



6321)로 문의하면 지원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5일 전주시 치과의사회와 어린이 치과주치의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치과주치의 사업이 취약계층 어린이들의 치아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길 바라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쇼핑물 없는 도심숲 조성"

정의당 서윤근 전주시장 후보

정의당 서윤근 전주시장 후보가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전체를 도심숲으로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전주시청 공간협소 문제는 이전없이 증축 및 재건축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서윤근 후보는 11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전주시민의 명소가 되고 전주를 찾는 여행객들에게 랜드마크가 될 도심 숲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전주시청 이전과 관련해 "전주시청 이전은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낳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현 위치에서의 증축을 주장했다. /김윤상 기자

"종합경기장 개발사업 최대한 빨리 첫삽"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사업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첫 삽을 뜨겠다고 밝혔다. 우 예비후보는 11일 "전주종합경기장 내에 대규모 전시와 국제회의를 유치할 수 있는 5성급 호텔과 전시컨벤션센터를 건립, 문화관광 및 상업기능 중심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4대 지역관광 거점도시로서, 대규모 회의 및 전시 수요가 있음에도 컨벤션센터가 없어 행사 규모를 축소하거나 개최를 포기해야 했다"며 "이 곳에 들어서게 될 호텔과 컨벤션센터는 전국적인 규

모와 면모를 갖춰 수도권 행사나 국제 행사를 유치해 도시성장의 중심축 역할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컨벤션센터 건립 후발주자인 만큼 타 지역의 문제점 등을 보완해 규모나 시설 등을 제대로 갖춰, 지어놓고도 규모가 작아 제 기능을 못하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의 경우 하나만으로는 부족해 결국 제2컨벤션센터를 짓고 있는 실정이다.

우 예비후보는 또 대한방직과 연계한 대형쇼핑몰 유치를 추진해 전주를 글로벌 관광지로 도약시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전주컨벤션센터는 전주관광산업과 연계해 지역경제 발전의 선순환을 이루는 선순환을 위한 관공사업과 동반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경로당 회장에 월 5만 원씩 활동비 지급"

유창희 전주시장 예비후보

유창희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경로당 회장들에게 활동비로 매월 5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후보는 11일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경우 이에 준하는 직책을 줄 수 있고 예산지원도 가능하다"며 "경로당 회장들에게 매월 활동비로



5만 원씩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면서 "시의 회와 협의해 무보수직이면서 노인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회장님들의 여건을 감안해 회장님들의 처우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로당 회장들에게 수당이 지급되면 높은 책임감과 함께 노인 봉사자로서의 역할도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경로당 회장들에게 노인들을 상대로 한 민원 상담과 노인 교통안전 교육을 받도록 하고 정기와 도시가스 안전 확인 등을 통해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이르신들이 기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학교부청소년지원센터 성폭력·디지털성폭력 예방교육

전주시학교부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정혜선, 이하 전주시 꿈드림)는 11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육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아동·청소년 관련 디지털 성범죄인 텔레그램을 이용한 'n번방', '박사방' 사건 등 사회적 파장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양보름 전문강사(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폭력예방치료센터)가 강사로 나서 △전문디지털 성범죄 및 성희롱 피해 관련 내용 △사건유형 등 다양한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들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에 관련된 어떤 성역할 고정관념이 있는지 토론하고, 상황에 따른 판단과 대처방법, 예방법 등을 안내하기도 했다.

정혜선 센터장은 "성 인권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올바른 성 가치를 확립하고, 자신의 성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농업기술센터, 슬기로운 귀농생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주시가 초보 귀농·귀촌인과 예비 귀농인들의 슬기로운 농촌생활 적응을 돕기로 했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는 11일부터 오는 5월 30일까지 신규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돕기 위해 귀농자 및 귀농 예정자를 대상으로 '슬기로운 귀농생활' 교육을 운영하며, 교육과정은 매주 월·수요일 4시간씩, 총 15회(60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수강생들은 △작물재배 기초 △작물 수확성 분석 △귀농성공전략 △귀농 우수사례 △선도농가 벤치마킹 △농기계 안전사용법 및 조작 실습 △농업 정책 및 귀농 일반 △농업 관련 기초 법률 등을 이론과 실습, 현장교육을 통해 배우게 된다.

이와 관련 11일 열린 첫 교육에서는 김휘승 전 전라북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 귀농귀촌 부장이 강사로 나서 '전라북도 귀농·귀촌 정책'을 주제로 한 강의를 통해 귀농인 주택 구입, 교육 지원,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 등을 안내했다. /김윤상 기자

다자녀기준 '2자녀 이상'으로 확대

전주시, 입장료·이용료·주차료·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혜택 제공

전주지역 공공시설 입장료와 체육시설 이용료, 주차요금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다자녀기준이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된다.

전주시는 오는 14일 공포되는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다자녀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변경하고, 입장료와 이용료, 주차료 및 상하수도요금 등의 감면혜택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2자녀 이상 가정 중 자녀 1명 이상만 18세 이하인 가정은 다자녀감면서비스를 지원하는 '다동이야호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2자녀 가정의 경우(2020.12월 기준 34,667가구) 자연생태관과 경기전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으며, 동물원의 경우 입장요금의 3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또, 전주시가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공영주차장의 경우 각각 이용료의 20%와 10%의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여기에다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매월 5㎡ 사용료에 해당하는 6450원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전주시는 다자녀가구의 다동이야호카드 발급을 위해 11일 전북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민·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3자녀 이상의 경우(2020.12월 기준 9,148가구) △자연생태관·경기전·동물원 입장료 무료 △전주시 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전주시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감면 등 기존 혜택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기존 다자녀가구에 발급된 다자녀우대증도 '다동이야호카드'로 명칭을 개선하고, 발급방식도 개선됐다.

이에 따라 2자녀 이상 가정은 전북은행 각 지점에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카드신청이 가능하며, 세대당 카드발급 수는 1개로 제한된다.

시는 다자녀가구의 다동이야호카드 발급을 위해 11일 전북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민·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김윤상 기자

"체육지도자 파견 확대할 것"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 체육 관련 정책 발표

전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조지훈 예비후보가 11만 생활체육인이 희망하는 시간과 종목에 맞춰 체육지도자를 파견하겠다고 약속했다.



11일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시민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해 체육활동을 적극 유도하고 체육분야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체육지도자 지원을 확대하고 운영방식도 발표했다.

현재 체육지도자가 공공체육시설에서 운동을 지도하고 있지만 전주 지역 내 50여 개 종목, 11만 생활체

육인들의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더욱이 전주 시민 10명 중 7명 정도가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만 대형공공체육시설 이용률은 2.5%에 불과하다. 여기에 생활체육 및 스포츠 관련 동호회 활동 비율이 2017년 58.2%에서 2019년 69.3%로 증가한 가운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신·육체 건강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만큼 생활체육인구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로 인해 체육지도자 파견을 대폭 확대해 달라는 생활체육인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조지훈 예비후보는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참여할 수 있는 생애주기 체육활동 환경을 조성해 체육복지 실현하고자 같은 요구를 적극 반영, 생활체육인 10명 이상이

신청 시 파견할 수 있도록 체육지도자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체육 관련 학과 졸업생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힘을 보태겠다는 구상이다.

또 수요자 중심의 운영을 실시, 생활체육인들이 희망하는 시간과 종목에 맞춰 체육지도자를 정기적으로 파견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생활권역 내 체육활동 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전주시역 내 초등학교의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해법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행정은 시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체육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생활권역단위에서 가깝게 즐기는 운동을 선호한다면 이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건강한 도시, 활기가 넘치는 도시를 위해 체육 관련 정책을 꾸준히 발표, 특히 시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항상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